

제2 이세돌·드론 전문가 배출…광주·전남 특성화고 차별화 교육

교육부가 올해 내놓은 전국 특성화고 472개교와 마이스터고 43개교, 일반고 직업반 77개교(옛 종합고 전문반) 등 직업계고 졸업생 11만4225명의 취업률은 47.2%다.

지난해(46.6%)보다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지난 2009년(16.7%) 이후 7년 연속 상승세다. 최근에는 대학 졸업자의 극심한 취업난과 맞물리면서 중 3 학생·학부모들의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다. 광주에서는 9개, 전남은 43개 특성화고 원서 접수가 14일부터 시작된다.

입시전문가들은 “특성화고는 철저하게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만큼 학교 특성을 잘 알고 충분히 협의한 뒤 진학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전남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지역에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수업 방식을 내세우고 있는 특성화고를 살펴봤다.

광주 9·전남 43개교, 14일부터 신입생 모집

바둑·말산업·관광외식 등 진로 다양해 인기

◇“바둑프로그램사 해볼까”, 한국바둑고 =순천에 있는 한국바둑고(교장 김충구)는 국내 유일의 바둑 특성화고다. 내년도 신입생 40명을 전국 단위로 모집한다. 바둑 특기자 전형으로 24명을 뽑고 바둑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14명을 모집한다. 모든 지원자는 자체 출제한 바둑 실기고사를 치러야 한다. 다만, 지역 인재전형(2명)은 제외된다.

한국바둑고는 지난 2013년 급감하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고민 끝에 나온 학교다. 지난 1972년 개교한 주암중합고의 바둑고 변신은 차별화에 성공하며 입소문이 났다. 프로그램사 사범 문화생 등 사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던 바둑을 공교육 틀 안으로 가져오면서 바둑 외에 일반적 교과 과목도 함께 진행한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4명의 프로 기사가 바둑교사(4명)과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매년 ‘프로 기사 초청 지도 다면기’를 진행하고 있다. 다면기는 프로그램사 1명과 아마추어 여러 명이 맞붙는 대국을 말한다. 그동안 이세돌 9단(2014년)을 비롯해 조한승·목진석·

최철환·박정상·송태곤·박영훈·이영구 9단 등이 다녀갔다.

올 졸업생 39명 중 28명이 바둑 지도사 3급 자격증을 땀다. 전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한국바둑중학교 개교가 이뤄지면 바둑 교육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학교측은 기대하고 있다.

◇‘말산업 전문가’ 양성기관, 한국말산업고 =한국말산업고는 마필관리사·장제사(말에 편자를 대는 사람)·말조련사 등의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원은 40명. 농림부와 한국마사회가 지난 9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교육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게 학교 설명이다.

말 관리와 말의 보전관리, 장제, 승마실습, 재활승마 등을 익히고 학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동아리(장제·승마·마필관리)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전북에 위치한 한국경마축산고를 제외하면 말 산업 분야 전반을 다루는 전국 유일의 공립 특성화고라는 점에서 차별화



광주·전남 특성화고가 오는 14일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 ‘취업률’만 보고 선택하는 것보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왼쪽부터 국내 유일의 바둑 특성화고인 순천의 한국 바둑고 학생들의 수업 장면. 광주자연과학고 조리과학고 학생이 요리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승마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 장흥의 한국 말산업고 학생.

■광주·전남 특성화고 신입생 전형 일정

	광주	전남
원서접수	11월 14~18일	11월 14~18일
합격자 발표	11월 28일	12월 1일
등록기간	11월 28일~12월 2일	2017년 1월 16일 이후 학교장이 결정
추가 모집 원서	12월 5~7일	
추가 모집 발표	12월 8일	1월 3일 이후 학교별 모집

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전남도교육청 평가다.

선명완 한국말산업고 교무부장은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면 말 관련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신입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광주공고 =광주공고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한 커리큘럼으로 눈길을 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기업에서는 체계적인 현장교육을

받으며 졸업 후 공장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광주공고는 2학년부부터 금형과 절삭가공 분야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2학년 54명, 3학년 5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 중 2~3일을 기업에서 도제직업 교육을 실시한다.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24개 협약 기업체에 바로 취업하게 된다. 광주공고는 내년에는 융접 분야까지 확대한다.

학생들 입장에서 취업난에서 자유롭고 기업체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광주·전남 특성화고가 오는 14일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 ‘취업률’만 보고 선택하는 것보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왼쪽부터 국내 유일의 바둑 특성화고인 순천의 한국 바둑고 학생들의 수업 장면. 광주자연과학고 조리과학고 학생이 요리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승마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 장흥의 한국 말산업고 학생.

있는 능력있는 인재를 확보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는 게 학교측 설명이다. 광주공고는 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국가 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실전 창의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만큼 취업·진로에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드론 전문가 양성, 고흥산업과학고 =고흥산업과학고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드론산업과를 개설하고 내년도 신입생 50명을 모집한다. 2개 학급(학급당 25명) 규모로 학생들은 2학년부부터 드론 실무를 접하게 된다.

고흥은 정부가 발표한 ‘드론산업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전국 최초로 농약살포용 드론 실증 보급 사업을 벌이는가 하면, 드론 아카데미 개설, 드론비행체험장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는 12kg 이상의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드론지도조정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커리큘럼을 꾸렸다. 학생들은 1인당 한 대씩 레저용 드론을 조정하면서 5명당 한 대꼴로 항공활용용 드론을 운용하는 실무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진로도 무

인기 조정·농약살포, 드론기술병 등 다양하다는 게 학교측 설명이다.

◇셰프 꿈 키워볼까, 조리과학고도 관심 =전남 조리과학고와 광주자연과학고 조리과학과는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 열풍과 셰프 등의 인기로 힘입어 지원자가 많은 인기 특성화고로 분류되고 있다.

전남 조리과학고도 지난해 78명을 뽑는데 184명이 몰리면서 2.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전국 유일의 공립 조리특성화고’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방과후 전문자격증(한·양·일·중식, 제과, 커피) 교육 등을 통한 취업 역량을 높여 취업률(지난 4월 기준)이 86.6%에 달할 정도다. 싱가포르 글로벌 현장학습 등도 학생들의 눈길을 끄는 교육과정이다. 올해 모집인원은 75명이다.

광주자연과학고 조리과학과의 경우 한식·양식(1학년), 일식·제과제빵(2학년), 중식·관광외식조리(3학년) 교육 과정을 운영중이다. 지난해도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소프트웨어고 3.59대 1…여수석유화학고 1.9대 1

광주·전남 마이스터고 원서 마감

내년 첫 신입생을 받는 광주소프트웨어고 학생·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으로 경쟁률이 치솟았다. 대학 졸업자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고졸자 취업 강화, 중학교 진로교육 등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31일 ‘2017학년도 마이스터고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소프트웨어고가 80명을 뽑는데 287명이 몰려 3.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 첫 신입생 모집인데도 높은 경쟁률로 이어진 데는 정부가 매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선정하는 등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점과 마이스터고의 높은 취업률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자동화설비공고(1개과 80명)도 180명이 원서를 내 2.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자동화설비공고의 경우 최근 3년간 취업률이 ▲2014년 98.75% ▲2015년 97.37% ▲2016년 4월 기준 91.1%에 이른다.

전남지역 4개 마이스터고도 모집 인원을 넘어서는 학생들이 원서를 냈다. 다만, 전년도에 건위 경쟁률은 다소 낮아졌다.

여수석유화학고가 100명 모집에 190명이 원서를 내 1.9대 1(전년도 2.16대 1)을 기록했고 완도수산고의 경우 80명을 모집하는 데 123명이 원서를 내 1.53대 1(1.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남생명과 학교는 100명 모집에 123명이 내 1.23대 1(1.34대 1), 한국향만물류고는 1.21대 1(2.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선대 대학원, 중국서 ‘FTA 활용방안’ 학술회의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주임교수 전의천)와 중국 원저우대학교 상학원은 지난 26~29일 원저우대에서 ‘2016 국제학술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조선대 대학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가 후원한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발효된 한·중 FTA(자유 무역협정)의 전략적 활용방안 등에 대한 학술교류가 이뤄졌다. 또 원저우에 진출한 한국 파형회사와 중국 고급의류 생산업체를 방문하는 등 산업현장도 시찰했다.

/중국 원저우=박정욱기자 jw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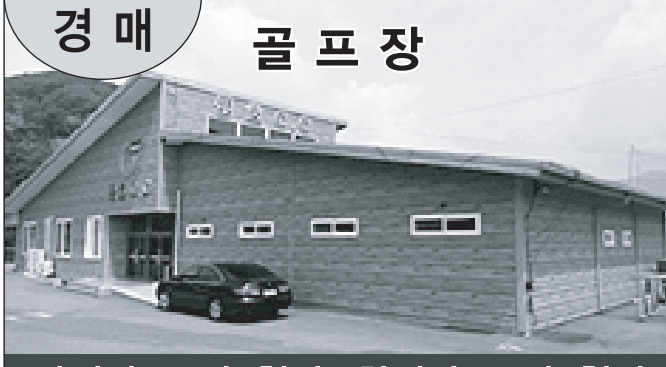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대표 1522·3396

경매

골프장



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39억8천만
광양시 봉암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

매매

오피스텔



매매가 40억
학동 / 8층 / 대지 133평 건물 577평

경매

수익형 빌딩



감정가 24억3천만, 최저가 17억
순천시 품덕동 / 10층 504호 / 대지 106평 건물 690평

매매

상가건물



매매가 14억5천만
월계동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

경매

골프연습장

감정가 110억, 최저가 110억
광양시 성항동 / 지하3층 지상3층 / 대지 3935평 건물 2667평 / 자연녹지지역 / 50타석 12홀

매매

전원주택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8억 9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접 / 자동차차기 / 3기 6구

매매

고급펜션 및 전원주택 부지

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
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접 / 해변 전망

매매

숙박시설 부지

감정가 6억, 최저가 4억 2천만
구례군 산동면 / 대지 1013평 / 계획관리지역 / 코너 12m도로접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소재

매매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접 / 보성강 전망

매매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상업중

매매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매매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매매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매매

계곡 산장

매매가 3억 5천만
고창군 고수면 / 대지 300평 건물 65평 / 보전관리지역 / 원두막 10개, 평상 10개 / 하천독점사용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6772-1114 김주성